메주고리예

제19호

Medjugorje

SEP. 2003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내 마음에로 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너희들을 부른다.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너희는 내가 여기 너희들 가운데 현존하고있다는 그 선물의 의미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님의 마음에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단다. 그러나 너희는 저항하고 있고, 기도에로 너희의 마음을 열기를 원치 않고 있다. 어린 자녀들아, 다시 한번 너희들이 너희를 위한 구원인 내 부름에 귀를 막지 않고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달으라고 너희들을 부른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구나.

2003. 9. 25 메시지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특히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 마리아의 눈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처음부터 저는 저의 교황직를 마리아의 특별한 보호에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공동체의 신자들이 다락방 체험을 새로이 하기를 누차 당부해 왔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에 전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1:14)

저의 첫 번째 회칙 "인간의 구원자"에서 저는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상황에서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오순절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용감하게 밖으로 뛰어 나갔듯이, 우리도 세상 끝날 때 까지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2항)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이신 것처럼 교회도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점점 자각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대 희년에 교서 "강생의 신비"에서 지적했듯이 교회는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눕히시고, 그 분을 모든 이들의 경배와 관상에 내맡기는 요람"입니다.(11항) 교회는 새로운 복음화의 별이시며, 빛나는 여명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이끄시는 복되신 동정녀와 함께 영적이고 선교적인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예정입니다. (새천년기 58항 참조)

묵주 기도의 해에 마리아와 교회의 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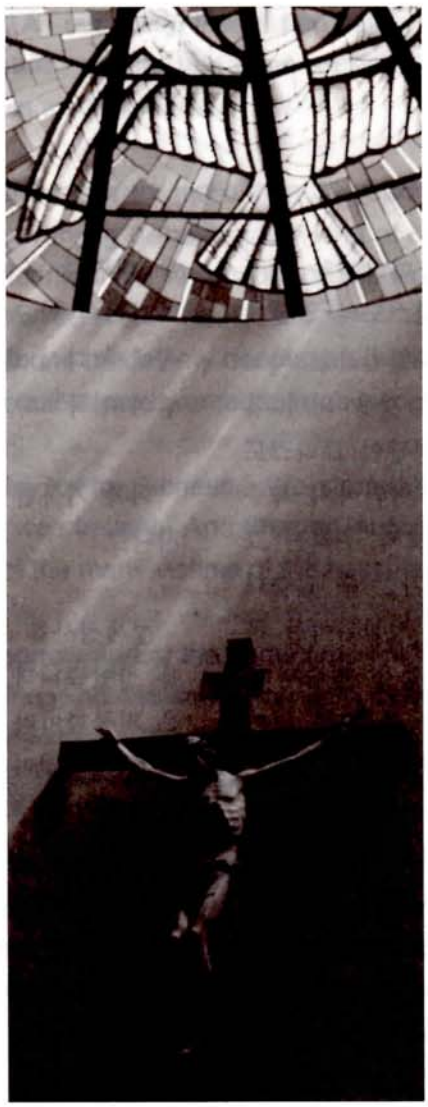
지난 2002년 10월 달, 즉 제가 베드로 직무를 수행한 지 25주년이 시작되는 날, 저는 아주 특별한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대 희년의 연속이며 참으로 귀한 그리스도교 전통인 묵주기도의 재발견을 봉헌한 것입니다. 이 한해 동안 우리는 늘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일치하시며 당신의 순종으로 인류 구원을 가능케 하시고, 당신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특히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마리아의 눈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묵주기도의 해에 모든 대륙의 신자들이 자신의 소명의 뜻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학교에서 그분의 표양을 따른다면 각 공동체 나름대로의 '관상'과 '선교' 행사들은 더욱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마리아의 해의 막을 내리는 날에 행해질 세계 선교 주일을 잘 준비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더욱 풍성한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생의 신비들을 묵상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모님께 완전히 의탁하면서 교회는 선교란 먼저 기도로 그 토대를 닦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것을 묵주기도를 통하여 경청한다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셨던 성모님(루가 2,19)과 더욱 일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성모님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생생한 친교의 삶"(동정 마리아의 묵 기도 2항)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관상적인 교회: 예수님의 얼굴을 관상한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관상합시다! (Cum Maria Contemplemur Christi Vultum!) 이런 단



라."(요한 2:5).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하느님 나라에로의 회개의 초대는 모든 이에게 거룩함의 길로 따라오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변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분을 기다리는 기쁨을 체험합니다. 성체 성사의 제정을 묵상하면서 그는 하늘의 주인이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 즉 제단의 성사에서 현존하시는 당신 자신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겨 주셨던 바로 그 다락방에로 종종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빛의 신비들은 복되신 동정녀께서 가나에서 말씀하신 것이 모여서 빚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과 "회개하고 자비를 믿으라." 또, 다볼 산에서의 변모 그리고 성체성사 제정 등은 모두 성모 마리아 마음의 특별한 메아리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당신의 말씀을 간직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당신 아드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통신문화를 개발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유로 교회는 교회의 거룩한 빛과 함께 신랑의 얼굴을 더욱 빛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마리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가 되는 길을 배우고 교회의 정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며 영원한 생명에로 인도할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머니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힘찬 강림으로 재생되는 가정처럼 번창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없는 이들, 신앙과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복음화 도전들을 끌어안고 교회는 두려움없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 (요한 14:6)을 외치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 그 핵심과 내용이 사람이 되신 말씀, 유일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바로 그 자체가 담고 있는 그 복음을 기쁘게 선포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동정 마리아의 묵주 기도, 20항).

유능하고 거룩한 복음화를 위해 사도들을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열렬한 사도들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아야 하며 특별히 '이방인'(ad gentes) 전교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묵주기도가 완전히 다시 발견되고 높이 평가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도

처에서 사도적 활동을 하게 만드는 단순하지만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육적이고 영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확고한 (로마교황의) 사명

선교 활성화의 과제는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계속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끊임없는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교황청 전교회는 특별하고 특정된 임무를 띠고 있고 그들이 헌신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묵주기도'를 개인적 혹은 공동체와 함께 더욱 열렬히 바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인류가 필요한 모든 은총들을 주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이들, 어린이들, 젊은이와 노인들, 또 가족들과 본당 그리고 모든 수도 공동체를 여기에 초대합니다.

많은 지향들안에 저는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전쟁과 불의는 갈라진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비를 본받고자 하는 이들은 -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묵주기도의 목적임을 확신함 - 평화의 비밀을 알고 이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습니다."(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40항) 만일 묵주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걸어간다면, 묵주기도는 분명히 아주 특수한 도구로서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모든 국가들 안에 평화를 건설할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아드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더욱 관대하게 내주어 전 세계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이바지 할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 입니다.

나의 생각과 기도를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M

2003년 1월 12일 주님의 세례 축일에,
로마 바티칸으로부터 요한 바오로 2세

러니 한번 노력해 보아라."라고 하셨다. 그는 주교님을 찾아 만나 보았다. 주교님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시면서 "베니, 너는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먼저 학교 교육을 다 마치고 다시 나에게로 오너라." 하시는 것이었다. 베니는 학교를 마치고 다시 주교님을 만났으며 주교님은 그를 영국에 있는 신학교에 보냈다. 베니는 이곳에서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았다.

멧케나 수녀님은 "우리가 덴마크에 갔을 때 우리는 베니를 만났습니다. 정말 가족의 수치스런 존재였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앞자리를 걷고 있는 것 입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성광을 보내 드렸는데 그는 그 본당에 늘 성체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 성당만 유독 메주고리예 저녁 프로그램이 매일 저녁 진행되고 있었고 성모님이 지시하신 것들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도 그분의 성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해주었다.

"우리가 베니 사제가 계신 본당에 갔을 때, 함께 있었던 아주 잘 생긴 젊은 사제에 대하여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이고 모스코바에서 마르크스와 레닌 주의자의 교육을 받음으로서 스파이로 일하도록 다시 덴마크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그는 하느님에 대해서 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해변가에서 햇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르코,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네가 천주교인이 되고 사제가 되기 바란다!" 하는 천둥 같은 내적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집으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제가 무엇인지 몰랐고

천주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간신히 천주교를 찾았고 3주가 걸려서야 본당 사제를 만났습니다. 영세를 받고 마르코는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았기에 즉시 신학교로 보내졌습니다. 그 신학교가 바로 베니 사제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둘은 같은 공동체에 파견 되었습니다. 마르코가 사제 서품을 받기 전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아저씨는 천주교로 개종하여 모든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분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늙으신 분에게 그의 조카가 사제 서품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저녁 이 공동체에 갔습니다. 우리는 베니 신부님과 마르코 신부님이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성체 현시를 해 놓고 신자들로 꽉 찬 성당에서 메주고리예 프로그램과 하느님의 자비 기도를 이끄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제들에게 본당을 이끌라고 허락하는 것은 자유스런 공통된 것이지만 사제들이 어떻게 신자들을 이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두 성소는 그 가족 중에 누군가 기도를 삶의 습관화로 했기 때문에 얻어진 수확입니다." M

나의 자녀들아, 평화, 평화, 평화

-메주고리에의 목격증인인 이반 드라기비취가 호주 방문시의 인터뷰-

질문: 성모님께서 어떤 모습이신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반: 성모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조차 없습니다. 회색드레스에 하얀 베일을 하시고 푸른 눈을 가지셨고 붉은 뺨에 검은머리, 구름에 떠계시며 별이 있는 왕관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성모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하며 성모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성모님은 오후 6:40 경에 오시는데, 성모님이 오시기전에 저는 성모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오시는 순간에 제가 무릎을 꿇으며, 일단 성모님이 오시면 저는 제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성모님만 보게 되죠. 대부분 성모님은 기쁜 모습으로 오시며 먼저 "나의 자녀들아, 예수님을 찬미하여라."하고 인사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럴 땐 인사를 하신 후 팔을 펼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들의 어머니로서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져온 성물을 축성하시고 나면 제가 그곳에 모인사람들과, 아픈이들, 특별한 청원을 가져온 사람들을 위해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어머니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성모님께서 세상과, 사제들, 가정,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데, 주로 전 세계를 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메시지를 받으면 발현 후에 그것을 적어서 곧 전 세계에 전합니다. 발현이 끝나면 성모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화를 가지고 가라."고 인사하시며 십자가의 빛 속으로 사라지십니다. 저는 성모님을 여러분들에게 하듯 3차원적으로 뵙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성모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모님의 나이를 물어보신다면 대략 26-27세 정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질문: 당신은 성모님을 만질 수 있다고요?

이반: 만일 제가 원한다면 성모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성모님께 들어올렸고 아이들이 성모님을 만질 때 아이들의 눈을 주시하였는데, 그것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나이가 7살, 3살, 16개월인데 여러분도 그 아이들이 경험한 것을 얼굴에서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그것을 표현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

질문: 세계는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 도처에서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성모님께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이반: 이 마지막 21세기를 통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나의 아드님께서 너희를 도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화, 평화, 평화., 평화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한다. 자녀들아, 이 세상과 인류는 대단한 위험과 파멸로 향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모님 발현 초기에 성모님께서 평화를 몹시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는 기도와 함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21세기에 가장 촉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계속해서 평화

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우리 자신을 열며, 또 성령께 우리를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와 기도의 메시지 다음으로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에로 부르시며,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이반: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두움을 말씀하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희망의 어머니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세상에 빛을 가져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빼내시고 빛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지친 세상과 교회, 지친 가정과 청소년을 들어 올리시고자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힘을 주시고자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강해져야 교회가 강해지고, 너희가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진단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교회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세상, 인류에게 희망과 미래는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변해야한다. 너희들이 하느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질문: 요즘 교회는 성 스캔들 등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성모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이반: 성모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적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이 지향으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요청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단지 사제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도 내다보십니다. 너무나 많은 이혼과 낙태, 그리고 집 잃은 아이들...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가족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미사참례를 하고 고백성사를 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질문: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명백히 태도를 밝혔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동성애가 하느님 뜻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이반: 결코 어머니께서는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조정하기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기도하실 뿐입니다.

질문: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반: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천국은 보여주셨지만 지옥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시려 했지만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처음 천국을 보았을 때 저는 성모님과 함께 있었으며 사람들이 걷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파란 옷과 하얀 긴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략 35에서 40세 가량 보였습니다. 천국은 끝이 없었고 울타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3~4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저는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다."

질문: 교회가 메주고리예를 완전히 인준을 하지 않

은 것에 대해 당신이나 성모님께서 실망하시지는 않았는지요?

이반: 실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저는 그 지향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저는 성경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 볼 것이다."

질문: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성모님께서 가짜 예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이반: 성모님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성모님을 뵈었다고 말합니다. 저의 입장은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사람들에게 신부님을 찾아가서 상의 드리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질문: 혹자는 목격증인들이 메주고리예를 통해 돈을 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십니까?

이반: 저는 그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슬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새롭거나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AIDS는 하느님의 징벌입니까?

이반: 성모님께서 그것에 대해 확실히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2,3백만 명이 이병으로 죽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것은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서로 돕지 못해 일어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질문: 많은 사람들이 암과 같은 병이나 다른 것들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이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특히 아픈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저는 그들과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병이든 간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맡겨야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질문: 세상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반: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가정에 평화가 있으면 그 다음에 평화가 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오고 그것이 다른 일들을 파생시킵니다. 하느님을 외면한 모든 말과 지혜는 실패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중심에 계셔야하고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평화를 가져오고 그러면 세상은 평화롭게 됩니다.

질문: 이번 호주여행에서 희망하시고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저는 성모께서는 우리의 어머니로서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단지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많은 타종교인들의 회개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고

있지만 어머니로부터는 상당히 멀리 있어왔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어머니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도 묵주기도를 하고 미사에 참례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성모님과 하느님 안에서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며,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질문: 당신은 성모님을 볼 수 있어서 축복 받았다고 생각 합니까?

이반: 저는 이런 일을 꿈꿔본 일도 없었습니다. 16세 이전의 저는 내성적이고 수줍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에 저는 빨리 기도가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처음 발현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되묻곤 했습니다. "왜 나일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많을텐데... 내가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제 일생동안 이것은 큰 선물이고 큰 기쁨이며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압니다. 매일 5-10분 혹은 30분씩 성모님을 뵙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문: 보스니아 전쟁 때 메주고리예는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개입하신건지요?

이반: 저는 하느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질문: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반: 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1994년 결혼했고 저의 아내는 보스톤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저희에게 세 아이 -크리스티나, 미카엘라, 다니엘- 가 있습니다. 저희는 6개월은 메주고리예에서 지내고 6개월은 보스톤에서 지냅니다. 겨울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위해 미국에서 지냅니다. 저희는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21년간 저의 삶은 평화, 사랑, 기도의 학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정에 가져옵니다. 저는 인간 가운데 도구이며, 성모님과 세상의 전달자로서 살아있는 표징이 되고 싶습니다.

질문: 사람들이 당신을 유명인사 취급을 하지는 않던가요?

이반: 저는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저는 단지 16세 때의 저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이반: 우리 모두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반: 우리는 평화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 평화와 기도가 돌아와야 우리의 가정과 세계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상의 약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M

땅 끝까지 전하는 하느님 사랑

김기수 신부

- 맨하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주임,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신부 -

1월 14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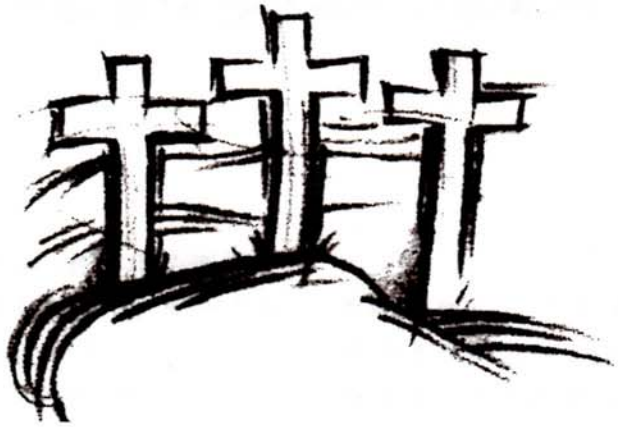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미사를 봉헌하였다. 어젯밤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도 혹독하게 추워져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이곳은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고 추운 지방인데,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눈을 치우지 않는다. 그래서 눈이 조금만 와도 차들이 모두 거북이 걸음이다. 길은 미끄럽고 눈에 푹푹 빠지는데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자동차, 인력거, 자전거, 사람, 등등, 모두가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 같다. 이런 날은 밖에 나가면 힘들기만 하다. 집안에서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내일 활동하기로 하였다. 오후에는 춥지만 날이 개여서 유베드로 형제집과 훈춘본당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1월 15일, 수요일

어제 저녁때 훈춘에 있는 유베드로 형제댁에 와서 자고 오늘 아침에 훈춘성당 8시 미사에 참석하였다. 오늘은 몹시 추웠으며 훈춘은 항상 바람이 심하게 분다. 영하 20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조신부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중국말로 미사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강론은 나에게 하라고 하여, 우리말로 강론을 하였다. 미사 후 사제관에 가서 조신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7살 된 탈북자 어린아이가 와서 떨고 서 있었다. 조신부에게 내가 저 아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공중변소 모퉁이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21살 된 형과 함께 사는데, 학교는 국민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중단했다고 한다. 형은 집단농장에서 일하여 밥만 얻어먹고 있는 형편이고 자기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중국으로 몇 번 넘어와서 구걸하여 먹고산다고 했다. 중국에 온지는 며칠 되는데, 어제 저녁에도 그 추위에 어느 농가의 빈집에서 잤다고 한다. 추워서 한잠도 못 자고 아마 밤새도록 떨고 지새웠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중국으로 다시는 넘어오지 않고 조선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 애는 중국 돈 500원 정도만 있으면, 조선으로 가서 그것으로 석탄장사를 하면서 형과 함께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며칠을 굶은 것 같은 그 애를 데리고 유데레사 자매와 카타리나자매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먼저 석탄 장수 같은 그 애의 얼굴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고, 카타리나자매가 아침을 차려주었다. 청국장 두 그릇과 밥 두 그릇을 잠깐 사이에 먹어치웠다. 데레사 자매님 집에 있던 옷을 입히고 내가 끼던 장갑과 목도리 두 개, 양말, 등을 싸서 주고 중국 돈 1,000 위안을 주면서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형과 함께 석탄장사를 해서 살 길을 찾아보라고 돌려보냈다. 사진을 찍어두면서 다시 성당으로 찾아오면 잡아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화룡에서 탈북자들이 와서 기다리니 빨리 와 달라는 전화가 왔다. 훈춘을 떠나 연길 양교수님댁에 잠깐 들려서 미국에서 가지고 온 옷, 장갑, 목도리, 등을 싸 가지고 화룡으로 바로 갔다. 훈춘에서 화룡까지 가는데, 약 3시간이나 걸렸다. 오늘도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다. 화룡으로 가는 길에 화룡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왔다. 화룡에 도착하니, 권철호 전도사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문교회로 데리고 가기에 따라가 보니 교회 안에 40대 정도의 조그만 남자가 와 있었다. 이름은 허창호(37세), 무산에서 왔다고 한다. 작년 겨울에 중국에 건너 와서 남평의 남의 집에서 헌옷을 빌려 입었기에 내가 시장에 데리고 가서 새 옷과 신발 스웨터 등을 사주고 돈을 주



어서 넘겨 보냈던 아주머니 두 분 -리영희와 김해금아주머니- 중에, 김해금(가명) 아주머니의 남편이라고 (금성이 아버지)한다.

이 사람은 어제 무산에서 조명식(30)이라는 청년과 함께 로가로 넘어와서 조선족 집에 가서 옷과 신발을 빌려 신고 택시를 타고 오다가 중국 공안원의 검문에 걸려서 조명식이는 붙잡히고 자기는 화룡까지 도망쳐 왔다고 한다. 자기는 운이 좋아서 신발을 중국 것으로 얻어 신었는데, 조명식이는 조선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어서 검문에 걸려서 말을 물어보니까 중국말을 못해서 붙잡혀 갔다는 것이다.

작년 겨울에 만났던 리영희 아주머니의 소식이 궁금하여 어떻게 지내는 가 물어보았더니, 그 아주머니 남편이 지난 달 12월에 강제노동 작업을 하다가 산에서 얼어 죽었다고 한다. 지난해 만났을 때, 자기 남편이 몇 년 전에 배가 고파 집단농장의 소를 한 마리 잡아먹고 13년 강제 노동형을 받고 복역 중 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지난 12월 강제 노동소에서 복역자들을 산으로 보내어 혹독한 작업을 시켰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폭설이 내려서 강제 노동을 하던 수백 명의 복역자들이 얼어죽어서, 지금 북한 당국에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리영희 아주머니 남편이란다.

허창호의 말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배급도 끊기고 한국에서 원조하는 쌀은 가장 좋은 쌀이라 시장에 가끔 나와서 팔린다고 한다. 그것이 작년에 비하여 많이 올라서 북한 돈으로 1Kg에 150원이고, 질이 조금 떨어지는 쌀은 120원정도, 옥수수는 1Kg에 80원 한다고 한다. 무산 광산에서 일하는 광산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보통 북한 돈 1,000원(U.S. 달러로 2달러)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도 못 받는 달이 더 많다고 한다. 광산 노동자가 한 달에 1,000원 받으면 그것으로 옥수수 12Kg 정도 사는데, 그것으로 네 식구가 10일정도 죽을 끓여서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 쌀밥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옥수수 가루 죽으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하루 세끼 먹는 사람은 형편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사정은 식량도 큰 문제이지만, 식량이 생겨도 밥을 지을 수 있는 땔 깜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중국 공안원에게 체포된 조명식은 조만간 조선으로 넘겨져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허창호의 말은 북한에서는 중국돈보다 U.S. 달러가 더 바꾸어 쓰기가 수월하다고 한다. 그래서 허창호에게 조명식을 구하고 조명식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100을 전해주고, 리영희 아주머니에게 전해주라고 $100, 그리고 집에 가지고 가서 식구들과 먹고 살라고 $200을 주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데 필요한 경비와 조선에 가서 필요한 곳에 쓰라고 중국 돈 500위안을 주었더니 300위안만 더 달라고 해서 300위안을 더 주고 택시를 불러 태워 보냈다. 택시로 중국 공안원들이 검문하는 검문소 전까지만 가도 걸어가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서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M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김기수 신부님의 탈북자 돕기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프란치스코의 집'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맨하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치유 받은 알콜 중독의 늪

제 이름은 켓시입니다.

1986년 제가 메주고리예에 간 것은 그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천불이 만불 같았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으니깐요. 저는 그해에 이혼하고 혼자 외로이 4남매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두분 다 돌아 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14년 동안이나 기도, 미사와 묵주기를 하면서 알콜 중독이라는 늪에서 헤어나고자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나 늘 다시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속으로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고 다시 또 넘어지곤 했습니다. 수 많은 피정과 기도 모임들, 안수기도 내적치유의 기도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알콜 중독에서 치유 받고자 하는 노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치유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어릴 때 당했던 성 폭행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카운셀링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출소 기한법이 지나서 민사 소송을 걸으라는 충고를 받았으나 우리는 서로 합의를 해서 적은 돈을 받으면서 해결을 보았고 저는 그 돈으로 메주고리예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메주고리예. 그곳에서 천국을 맛볼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알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알코올 중독증의 유혹이 나를 땅속의 깊은 어두움 속으로 잡아 당기는 것을 느끼며 사탄은 "너의 최후 역시 너의 아버지처럼 될 것" 이라고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메주고리예를 갔을때 나는 제 자신도 모르게 비스카의 집 앞마당에 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간절히 바라며 비스카의 눈길이라도 받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스카, 그녀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틈새에

서 도저히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그늘진 그녀의 방으로 올라가는 층계 옆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난간에 기대어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떴을 때 바로 앞에서 비스카가 웃으면서 층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의 손을 꽉 잡아 제 머리 위에 올려 놓고는 두손 모아 기도하면서 간절히 애원하는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간단하게 기도해 주고는 층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날 오후에 저는 크리제박 산에 높이 솟아 있는 큰 십자가가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돌아 제 자신이 메리-고-라운드를 타고 돌고 있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사 시간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참으로 붉었고 밤새도록 그런 색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천국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 듯 하였고 이런 느낌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순례가 끝난 후, 저는 집에 돌아와서 모든 이에게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나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늘 메주고리예에 대해서 쉬지 않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서 내가 술도 안 마시고 술 먹고 싶은 마음 조차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7년 전의 이야기이고 그동안 많은 비극과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지만 한번도 술을 먹고자 하는 유혹은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기도 속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매일 묵주의 기도 한단을 기꺼이 바쳐드립니다. 확실한 것은 저의 간증이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몇몇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이것이 TV를 통한다면 수 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어요? 저는 TV를 통하여 세상에서 길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메주고리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주고리예는 정말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는 곳이며 그것은 현대 시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수고에 주님의 축복을 보냅니다. M

30년만에 본 고백 성사

나는 프랑스인이고 남편은 영국사람이며 두 딸은 미국에서 낳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펜실바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신앙을 가진 가족이 아니라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카톨릭 교회안에서 아주 나쁜 체험들을 하였고 우리는 천주교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 수록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3월에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 17일, 이라크와의 전쟁이 시작할 무렵, 저는 잠에서 깨어나 세상이 산산 조각이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다음의 두가지를 빨리 실시하여야 된다고 느꼈는데 그것은 1) 우리 이웃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기도문 하나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웃사람들이라서 그들이 아마 나를 미친 여자로 여길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느낌은 너무나 강했고 지속적이었기에 한번 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2) 메주고리예를 가야 한다. (저는 친구를 통하여 몇년 전에 들어 본 기억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적 메시지는 너무나 강하여 저의 남편에게 말하고 하루 속히 메주고리예를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일들에 대하여 왜? 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5월, 저는 1주일이 걸리는 메주고리예 순례를 가기로 신청했습니다. 순례를 떠나는 버스에 오르자 마자 저의 얼굴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 할 수 없는 기쁨이 샘 솟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메주고리예를 가는지 몰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들이며 오래 전부터 자주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 속에 끼어있었습니다.

당연히 외교인처럼 느껴져야 했는데 저는 그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질문들이나 의심 그리고 약한 믿음등 때문에 저를 무시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환경안에 그냥 휩싸였습니다. 저는 모든 이들과 주위 안에 스며드는 은총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픈 일이기는 했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30년 동안 보지 않던 고백 성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는 몇 시간이고 성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고 어떤 때는 9시간을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도문들이 서서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 기도문들을 열렬한 마음으로 하는 자신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모든 기도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영적으로 텅 비어있던 지난날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울었고, 좀 더 잘 할 수 있던 것을 평범하게 해 버렸던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잘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용서를 청하면서, 그리고 저 홀로 너무 오랜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해서 한 없이 울었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저는 신앙심이 깊은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믿음이 강한 사제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하면서 제대 앞에서 우시는 것을 보았기에 압니다. 저는 성모님을 뵙지 못했고 발현도 보지 못했지만 그 어떤 것에 정말 둘러싸여 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모두를

용서하는 사랑을 메주고리예, 그곳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일 날, 저는 메주고리예에서 새로 찾은 믿음이 제 마음안에서 강하게 자리하는 것을 느끼며 같이 온 순례자들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제 손을 잡고 계셨고 저는 그 분께 기대고 있었는데, 성모님이 제 손을 놓을까봐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수 많은 감정들이 교차되면서 감동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우리 순례 단원들을 이끄는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참된 순례는 우리가 돌아오는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무엇인지는 몰라도 아주 크고 아주 힘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세속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이 나를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는 분이 "당신들의 걱정을 모두 다 성모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모님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 보살펴 주실 것 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는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돌아 온 후부터 아주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해결되어 가고 있었고 그것들이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체험담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0년도 넘게 오빠와 등을 지고 살았습니다. 오빠는 심한 정신병으로 혼자 파리에서 살고 있었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온 식구들은 많은 세월을 걷잡을 수 없는 폭력과 무서운 광기로 고생하는 그를 뒤바라지 하다가 지쳐서 모두 두손을 들었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돌아 온 즉시, 저는 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오빠에 대한 모든 미움과 증오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안에는 제가 오빠에게 연락하여 나의 잘못을 용서해주기를 청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빠와 나는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들의 현실과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에 뒤덮친 무더위로 죽어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무척 슬펐지만 또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더 좋은 그 곳, 고통이 없는 그 곳, 외로움도 아픔도 그리고 천대 받을 일도 없는 더 나은 곳으로 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저의 오빠를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저와 오빠가 아주 특별한 은총속에 서로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메주고리예를 다녀와서 오빠와 화해 한일과 그리고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무서운 정신병을 앓으며 가족들을 협박하고 증오심으로 괴롭혔기에 마치 원수처럼 여기며 두려워했던 사람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솟아나면서 용서를 청하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그 오빠가 일주일 후에 죽었다는 것을 보면 어떤 것도 그냥 우연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빠와 제가 화해 할 수 있었던 것을 성모님께서 주신 큰 은총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미사에 나갑니다! 이제 저의 삶은 희망과 평화로 가득차 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봉사자들이 성모님의 메시지와 메주고리예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메주고리예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TV를 통하여 성모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와 희망을 모든 이들에 전합시다! M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후원해 주신 분들...

최 헬레나	이 베로니카	Min Chae Lee	Sueun Yi
문 데레사	소 안나	Poung C Park	Suk H Rim
황 아가다	홍 젬마	Hyung Tai Kim	한 수산나
황 카타리나	임 재영 아네스	Katherine B Hahn	송 난규
이 데레사	윤 벨라뎃다	Grace O'gorman	Byungdon Min
은 아네스	김 켈리	신 동배 바오로	Chong SUk Dardy
송 젤투루다	Song Kim	이 순자	Young Hyun Chun
김 크리스티나	Susan Oh	마 헬레나	Chung Hee Park
김 데레사	Chung Hee Pai	김 영숙 줄리아나	오 베로니카
김 아드리아	정 젬마	한 율리안나	김 종태, 김 옥선 마틸다
김 병순	Yon Suk Johns	이 영애 안젤라	Soo H Kim
최 비시아	Sun Jong Bang	임 병덕 데레사	Kun H Lee
손 레지나	이 경애 마리아	장 글라라	
박 카타리나	이 준영 콜베	Young H Park	

교황님께서는 (1997년 5월 11일) 대희년을 준비하실때 우리 평신도들의 사명을 일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발전하는 통신 문화가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주 쉽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동시에 같은 기회를 사용하여 선을 행하고자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너무 느리다는 것 에 역시 놀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낙천적으로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께서 대중 전달 매체 (매스 미디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새로운 매스 미디어 안에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도우면서 힘을 합하여 매스 미디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놀라운 큰 성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서로 도우면서 힘을 합하여 매스 미디어을 사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메주고리예 자녀들에게 하루에 적어도 묵주기도 한단씩을 봉헌해 주십시오!

교황님께서는 근래에 새로운 유럽의 미래를 성모님께 봉헌하셨는데 이분께서는 여러번 메주고리예를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대중 앞에서 Slobodna Dalmacija, 1995년 4월8일,3 페이지) 최근의 방문이였던 발킨스즈니트에 가시기 전에 바티칸 리포트에 의하면 교황님께서는 메주고리예에서 (모스터 교구에 속함) 12 마일 떨여져 있는 카톨릭 보즈니아의 수도인 모스터를 방문하기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가톨릭의 교황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반자, 루타 그리고 보즈니아의 수도인 서비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계시는 교황님께서 교황직을 맡으신 지 25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메주고리예를 TV와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세상에 전합시다! 적어도 하루에 묵주기도 한 단씩 드리면서 이 지향을 넣어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당신께서 성모님께 드리는 확실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교황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간주하십시오.

어머니,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당신의 현존하심을 전하겠습니다.

- 데니스 놀엔

(1)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본 "메주고리예" 소식지가 더욱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앞으로 자체 순례광고를 게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 기도해주세요!

메주고리예 목격자들의 영적 지도신부님이신 요조 신부님께서 이태리 순례자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론을 하시던 중 과로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요조 신부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세요.

(3) 친애하는 메주고리예 자녀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프라젝인 TV을 통하여 메주고리예를 세상에 알리자는 의미로 하루에 묵주기도 한 단씩을 바쳐달라는 8월15일 호소에 그처럼 많이 호응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모님의 마지막 메시지 속에 "내가 늘 너희들과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세상에 알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 사명과 함께 매일 묵주기도 한 단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경제적 도움 보다 더 중요함) 우리 어머니의 부르심인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은총의 원천은 여기 있지만 너희들이 그 은총들을 나르는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 바란다. 각자는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책임감 있게 해 나가기 바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그 은총들을 너희들이 사랑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들 자신이 그냥 간직하지 않기 바란다." (86년 5월 8일 성모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Http://www.childrenofmedjugorje.com"

"dnolan@childrenofmedjugorje.com" 메주고리예의 어린이들 중에서...

(4) 메주고리예 성지순례는 www.qpmm.org, 631-367-6191로 문의해 주십시오.

• 발 행 인 : 신경남 신부
• 발 행 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편 집 인 : 남미자
• 표지디자인 : 조혜선
• 자문위원단 : 요조 즈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정의철 신부, 박명근 신부, 표신천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Queen of Peace Missionary

Our Lady's Monthly Message
September 25th, 2003

"Dear children! Also today I call you to come closer to my heart. Only in this way, will you comprehend the gift of my presence here among you. I desire, little children, to lead you to the heart of my Son Jesus; but you resist and do not desire to open your hearts to prayer. Again, little children, I call you not to be deaf but to comprehend my call, which is salvation for you.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l"

Monthly Reflection on our Lady's Message

Testimonies from CENACOLO Community

Testimonies from Children of Medjugorje

HOLY FATHER

Preparing for the Great Jubilee the Holy Father called to us laity: "Public opinion has been shocked at how easily the advance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can be exploited by those whose intentions are evil. At the same time, can we not observe a relative slowness on the part of those who wish to do good to use the same opportunities? ... It is not easy to remain optimistic... Is there still a place for Christ in the traditional mass media? May we claim a place for Him in the new media? ... It would be a significant achievement if Christians could cooperate more closely with one another in the media...!
" (May 11, 1997)
We have a chance to "cooperate more closely with one another in the media" now. Give Children of Medjugorje every day at least one decade of your Rosary!

Pope John Paul II, who yesterday entrusted the future of the new Europe to Mary, has often expressed his desire to go to Medjugorje (even making it public, Slobodna Dalmacija, April 8, 1995, p.3). Before his recent trip to the Balkins Zenit reported an announcement from the Holy See that the Pope wanted to go to Mostar, the capital of Catholic Bosnia, 12 miles from Medjugorje (which is in the Mostar diocese). But the doors remained closed. The Pope was still not invited. And so he went to Banja Luka, the Serbian capital of Bosnia. As a gift to him in celebration of the up and coming 25th Year of his Pontificate, let's cooperate together to bring the events of Medjugorje to the world through television! Give us at least one decade of your Rosary each day for this intention. Consider it a concrete gift from you to Our Lady (the church celebrates her Birthday next week) and a personal gift from you to her Pope - the Pope of the Secret of Fatima!

© 2003 Children of Medjugorje

"Dear children! Also today I call you to give thanks to God in your heart for all the graces which He gives you, also through the signs and colors that are in nature. God wants to draw you closer to Himself and moves you to give Him glory and thanks. Therefore, little children, I call you anew to pray, pray, pray and do not forget that I am with you. I intercede before God for each of you until your joy in Him is complet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Message of June 25, 2003

"GIVE THANKS TO GOD IN YOUR HEART"

In this message, Mary, our Mother, invites us to pray in thanksgiving for all that God has given us, and continues to give us. Whatever he has created is for us and because of us. The Book of Genesis tells us: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upon the earth. Behold, I have given you every herb bearing seed, which is upon the face of all the earth, and every tree, in the which is the fruit of a tree yielding seed; to you it shall be for meat." (Gen 1:28b-29) God created man because of his immense love. He marked the human heart by the seal of his spirit and of his love in the most perfect way. All the other creatures are only signs of the presence of God, and a human being is the image of God. This is why the human heart does not find peace as long as it does not rest in God; this is why human beings can be pacified only by God alone. For human beings, God is a question impossible to circumvent, because He is the answer to the questions, which we ask: "To whom do I belong and to whom do I go?" Nobody and nothing can choke in us this desire, this hunger and this thirst for God. History shows us that God cannot be eliminated from the heart and the intelligence of men of all the generations. Human beings seek God in various manners and address themselves to different sources, which can be false and poisoned. With Mary, we are sure that we will find the healthy source, God Himself. She promises her intercession until our joy does not become perfect in God.

Like God looked with mercy at the humility of His maidservant Mary, He looks with mercy at each person, he loves each person. Mary invites us to look first at what surrounds us, the marvellous works of God, which themselves - without the Creator - could neither come into existence nor be. From created things and from creatures we can deduce the existence of the Creator. If the creatures can be so beautiful and so perfect, how much more is their Creator? To despise what God has created means to despise the Creator Himself. The world, which surrounds us, each person, and ourselves, are the work of the hands of the Creator and of His love. This world is God's world and all the universe breathes the breath of life of the living God. All that we are, all that we see and what we have does not belong to us, but to God. This earth is not ours but God's, it is his work. This is why human beings must unceasingly study this marvellous world and its laws, which he did not scrutinize yet completely. The human being, because he is a foreigner on this earth and because the earth is not his work, must examine and learn to know its laws.

A Slovak writer wrote a novel, "To Whom Belongs the Sun?", which tells the story of a boy from a very poor family. However, he did not know that they were poor, because they lived happily. He discovered his poverty at school, when the others started to call him poor. Then, the boy asked his mother: "Why do

people say that we are poor?" He received this explanation: "Because this house does not belong to us, because these things here and these things there are not ours..." The boy remained stunned. He did not know it. At the end, he raised the last, the decisive question: "And the sun, to whom does it belong?" The answer of his mother delighted him deeply: "The sun belongs to the good God." This was the revelation of the fatherhood of God, which, thereafter, carried him during his whole life.

Let us begin to give thanks to God. Let us learn how to pray while giving thanks, not only for all that is beautiful and good in our life, but also for what is difficult, painful, and even incomprehensible, knowing that God turns everything into good for those who love Him.

Let us learn with Mary and pray with Mary.

Fr. Ljubo Kurtovic
Medjugorje June 26, 2003
© Information Centre "Mir" Medjugorje, www.medjugorje.hr.

No matter what languages we say this prayer with, it is the most beautiful universal song that we can sing together! Let's learn !

The Hail Mary Prayer in Croatian and Italian language

Crotian

Zdravo Marijo, milosti puna, Gospodin s Tobom, blagoslovljena Ti medju zenama, I blagoslovljen plod utrobe Tvoje: Isus. Sveta Marijo, Majko Bozja, moli za nas grjesnike sada I na cas smrti nase. Amen.

Italian

Ave Maria piena di grazia il Signore e con Te Tu sei benedetta fra le donne e benedetto e il frutto del tuo seno, Gesu. Santa Maria, madre di Dio prega per noi peccatori adesso e nell'ora della nostra morte Amen

Testimonies from CENACOLO

Nicky from England

When I was thirteen years old my mother left my father and remarried. She wanted to take my brother and I with her, but he went to live with my grandmother and I remained with my father in Liverpool(England) These were the most difficult years of my life. My father suffered from depression, many times he was without work and I was often without much money. In the midst of this suffering, his alcohol addiction began. I had many moments of loneliness and, sometimes, I had to go to the bar to take him and bring him home. I was a very closed person and kept all these things inside of myself. Even if I really wanted to help him I didn' t know how. I felt sad and frustrated and at this time I began to smoke my first joints to take "LSD" and "ecstasy". I mistakenly thought I could escape in this way from my sufferings.

When I was 17 years old, I finished high school and that same year, my father remarried and I decided to leave home, moving to another city where I began to work. When I was 19 years old, I began to use heroin and cocaine. For many years I was able to hide my problem, falsifying my life hiding behind my work and my appearances. After four years my mother became aware of my drug addiction but I continued to take drugs, playing with my life and splitting my personality. I was indifferent to many thins; I felt like a failure and had no faith in myself. The "masks" that I wore helped the others believe that I was a strong and confident person. I tried to stop the drugs many times, making a lot of trips, living in different towns, falsely believing that I could resolve the situation by escaping from my problems and myself. After a few years, God gave me the greatest grace in my life, my daughter, Jessica. During the pregnancy I continued to take drugs, but when she was born something changed inside of me. For the first time I began to accept my situation and I felt the desire, the will power, and the hope to change.

I want to thank my mother for her help and for prompting me to go with her to Medjugorje. That week was difficult for me because I didn' t believe in God. But the Madonna touched my heart and guided me and in short time, I entered in Community. At the beginning it was hard; one day I wanted to stay and the next I wanted to go away. It was almost as if I woke up unexpectedly and realized the responsibility I had for my life and for Jessica' s life. I believed that I was a good mother because I loved her and gave her material things, but I came to understand that my drug addiction did not permit me to be a real mother. I was very proud and didn' t want to ask for help because that meant admitting that I was weak. Today I have learned how to ask for help without difficulty and I give thanks to God for this. In Him I found the strength to accept my inadequacy which draws me ever closer to His merciful love. In this path I have always had people near to me who have helped me with truthfulness with patience and love and together with Jesus they gave me the strength to remain in the community.

About a year after I entered, I had a strong faith experience during the "Festival of Life". For the first time, I felt the presence of Jesus in my heart. My faith has grown from that moment, always giving me more peace and joy, and the courage to change and to choose goodness. I want to be a woman of faith, because I realized that if I have faith, I have everything. Sister Elvira has given me many gifts, and one of the biggest is surely the opportunity to attend the school of prayer at the "Citta dei ragazzi" (City of Youth) of Father Gasparino, because I am deepening my prayer and my relationship with Jesus. I thank the Community because it taught me to appreciate the gift of being a mother and because it is teaching me to be a good Christian woman. I thank Sister Elvira because she always believed in me, and I am sure that with the help of the Madonna, she will show me, everyday, the right path to meet Jesus.

Testimonial #1

"Getting to Medjugorje in 1986 was a miracle in itself, the 1000 $'s might as well of been 10,000 $'s! I was so alone that year, I was divorced, with 4 children, having lost my parents when the kids were infants. My father, and grandfather had died alcoholics, and I was battling this sin myself. Fourteen years of prayer, the Mass and Rosary, and I kept falling back into alcoholism. Many conferences, prayer meetings and laying on of hands, healing of memories seminars: I wasn't going to give up! I knew the Lord had in mind a complete healing! I was in college, and in counseling for being molested as a child.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d run out, so I was advised to file a civil lawsuit. We settled out of court, a small sum, but it was enough to get me to Medjugorje. I arrived with a prayerful determination, I was going to bombard Heaven, I knew this was a last chance of sorts, as I felt the weight of my alcoholism pulling me towards that slippery slope, and Satan taunting me, you'll end up just like your father!

"I found myself at Vicka's patio, packed with people desperately trying to speak to her, or get her attention in any way they could. I felt so sorry for her, and thought I won't be a part of this, even though I wanted so badly to have her pray over me. I thought there was no chance in this mob, so I saw a cool, shaded empty area near the stairs that led up to her room off the patio. I inched my way over to this area, and leaned up against the railing, closed my eyes, and began to pray. I opened my eyes, and there in front of me stood Vicka smiling as she was inching her way up her stairs. I grasped her hands and placed them on my head, folded my hands in prayer and pleaded with my eyes. She prayed briefly over me, and disappeared up the stairs. That afternoon I saw the cross on Mr. Krizevac spin, spinning so hard, I felt a part of it as if I were on a merry-go-round! And during Mass that night I looked up and the moon was pure red, staying that way all evening. I felt such a closeness to heaven, a feeling I had never had before or since. I went home, and began to speak everywhere about Medjugorje, to anyone or group that would listen. It was about 2 months before I realized I wasn't drinking anymore, and didn't have any cravings! That was 17 years ago, I have endured tragedies and heartbreak, and never had a temptation to drink, only a deep desire to pray.

"Of course I will give you a decade of the Rosary, to spread Our Ladies message of Medjugorje! Think of just the few people I have been able to reach, and I know my story touched their lives. Think of the millions you can reach through the media!! I think using TV to convey Medjugorje's message to this lost and hurting world is a call from Mary herself! There is something there in Medjugorje,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our times. God Bless your endeavors!"

Testimonial #2

Colette is French, her husband, British and they have two girls born in America:

"We currently live in Pennsylvania. Our family is, or should I say, was not the religious type. Both my husband and I had had disgruntling experiences with the Catholic Church and we were happy to stay as far from it as we possibly could. And yet, in March 2003, something really weird happened.

"On March 17th, as the war with Iraq was about to start, I woke up absolutely convinced the world was going to pieces, and I needed to do two things; 1) Create a prayer group in my neighborhood, to pray for Peace. (I had never done such a thing in the past and I couldn' t even remember any prayers, and it was a new neighborhood, people were surely going to think I was totally nuts. But the feeling was so strong and so persistent; I had to give it a try). 2) GO TO MEDJUGORJE. (I had heard about the place through a friend a few years back. I knew what was happening there). The message was so strong I finally told my husband I had to go there straight away.

"I was baffled by what was happening to me, but for some strange reason, I didn' t question it. In May 2003, I signed up for a week-long pilgrimage. The moment I boarded the bus, I realized I had a permanent grin pinned on my face, a joy I could not explain. I didn' t know why I was going to Medjugorje. In the bus, I was surrounded by very devout Catholics, many of them long term returnees to the place. But instead of feeling alienated, I felt accepted. Nobody rejected me because of my questions, my doubts or my obvious lack of faith. Everybody I met on the trip seemed to have been put there to help me in my quest.

"In Medjugorje, I took in the atmosphere, the people, the events. I was amazed by the grace that seemed to permeate everything and everybody. It felt natural, albeit painful, to go to confession, even though I hadn' t done it for 30 years. It felt natural to sit in church many hours a day, some days up to 9 hours. My childhood prayers slowly came back to me, and I surprised myself saying them fervently. All of a sudden, those words took a meaning.

"I was overwhelmed with emotions. I could not be there without crying. I cried a lot about the past spiritual emptiness of my life, on the mediocrity of it all compared to what it could have been. I cried for forgiveness, I cried because I realized I had been very alone for so long.

"In Medjugorje, I met people with Faith. I met priests with Faith. I know, because I saw priests at the altar, crying during Mass. I did not see Mary, I did not see an apparition, but I felt something very strong, something very encompassing. I felt Love, Unconditional Love, All Forgiving Love.

"By the end of the week, I was praying the Rosary with my fellow pilgrims, with my new found Faith growing inside me. Mary had taken me by the hand, and I was clutching it, worried that she might let go of me. The return trip in the bus was full of mixed emotions for me. As we had been told by our pilgrimage leader, the real pilgrimage was about to start upon our return.

"I was worried that I would lose that feeling of being connected

to something so big, so powerful. I feared I would be swallowed up by the world and its unrelenting selfishness. But I needed not to worry. As our group leader had said: "Give all your worries to Mary, and she will take care of them". Since my return, my life has been an endless succession of small but significant events that keep me on my path. Here is the latest one:

"I had been estranged from my older brother for more than 30 years. He suffered from schizophrenia and was living alone in Paris, incapable of working or having any kind of social life. The whole family had finally shied from him after many years of suffering under his uncontrollable violence and terrorizing madness.

"Upon my return from Medjugorje, I found that all my deep-seated feelings of hatred and resentment toward him had suddenly evaporated . It was clear to me I wanted to renew contact

with him, make amends and ask him for forgiveness. We started exchanging emails, tentatively sharing details of our present day lives. This was in July. And then on August 12th, I got a phone call that he had died. He had had a heart attack, one of the many victims of the heat wave that hit France this summer.

"His death was such a shock. I felt sorrow and at the same time I felt he had been allowed to go to a better place, where there would be no suffering, no loneliness, no pain, no rejection anymore. I thanked Mary for taking him with Her, and for this immense grace of having given us this special time of reconciliation. All in my family were amazed at the connection between my unexpected trip to Medjugorje, my reconciliation to my brother and his sudden departure.

"I know all this could be looked at as just coincidences. But when you have lived your life under the threat of a sick mad man that you learned to fear and hate, and that by some inexplicable grace you feel compelled to ask and to offer him forgiveness, and that this person just dies weeks later, it puts into light a grander scheme of things.

"I now go to daily Mass! My life is filled with hope and peace. I am glad people like you are actively promoting Medjugorje and the messages of Mary. I wish for everybody to go there and experience for themselves the power of what is happening there. Let's use the Media to offer Mary's message of Love and Hope to all!"

Mother, we won't forget that you are with us!
We want the whole world to know!

©2003 Children of Medjugorje

평화의 모후 선교회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우리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뉴욕대교구 소속으로 미국 연방정부와 뉴욕주 정부에 가톨릭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본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우리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고자하며 이에 뜻을 함께 하실 봉사자 및 후원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월간 소식지 '메주고리예' 발행
2. 메주고리예 순례 안내
3. 메주고리예 목격 증인 및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개최
4. 메주고리예 관련 책자 번역 출판 및 보급
5.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6. 한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7. 그외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성모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일도 할 수가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들을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교사업에 함께 참여하시는 후원회원님들께 성모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후원님들께서는

1.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 '메주고리예'를 보내드립니다.
2.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접하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3. 메주고리예 순례 때와 매월 첫 토요일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금은 IRS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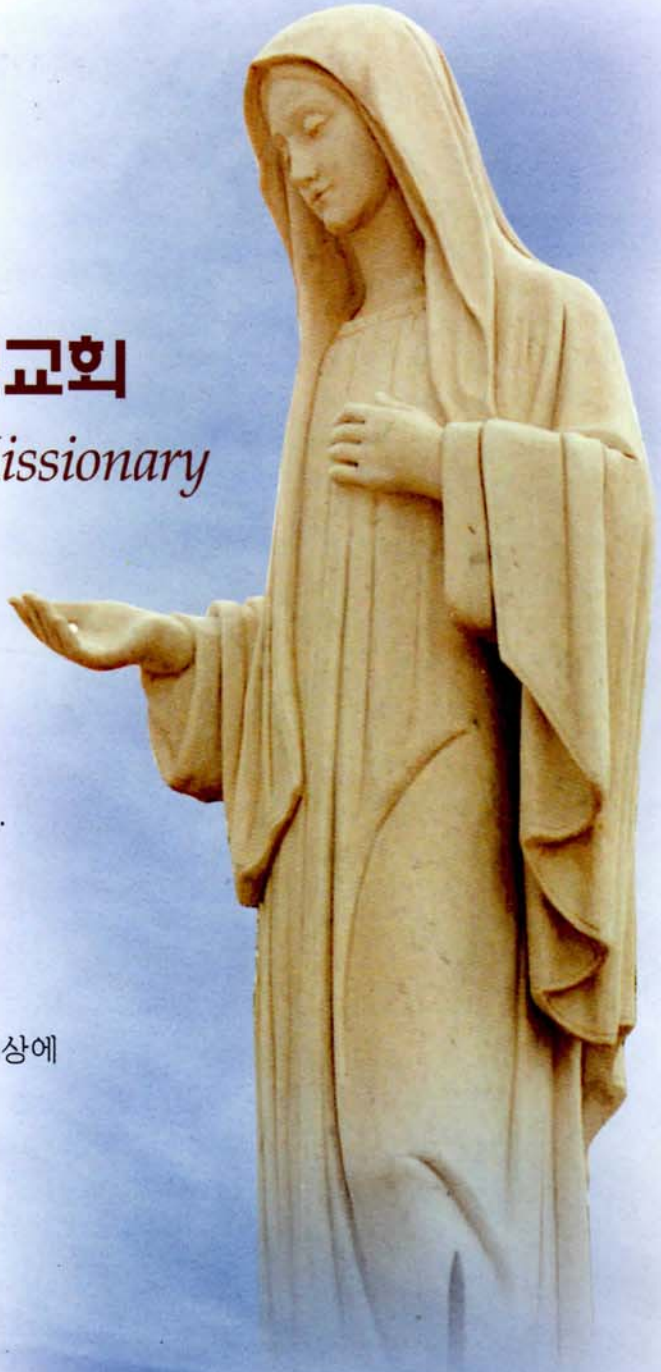
본 소식지 "메주고리예"는 후원회원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무료 배부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본당의 봉사자님들은
전화나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631-367-6191 / Fax.631-367-6194 / e-mail : qpmm@hanmail.net>

평화의 모후 선교회 "메주고리예 소식지" 후원 회원 가입서

성명 :	영문 :		영세명 :
주소 :			
자택전화 :	직장전화 :	Fax :	H.P. :
e-mail 주소 :		소속 본당 :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매월 ( )	6개월 ( )	1년 ( ) 기타 ( )
보내실 곳 (Mail to)	USA : Queen of Peace Missionary e-mail : gregorynam@hotmail.com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Tel.631-367-6191 / Fax.631-367-6194) 한국 : 허혜경 안젤라 e-mail : hhk2123@hanmail.net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APT 102동 505호 (Tel.031-878-7362 / HP.017-785-3535)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초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라고
너희들을 초대한다.
그러면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www.qpmm.org / E-mail : contact@qumm.org

U.S.A
남미자 미카엘라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 e-mail : qpmm@hanmail.net

한국
허예경 안젤라
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APT 102동 505호
Tel.031-878-7362 / HP.017-785-3535 / e-mail : hhk2123@hanmail.net